

제자나 훈련 세이상이 바람에 날려
제주 곳곳에 심어지다!

바람, 돌, 여자 이 세 가지가 많기로 유명한 제주도, 공항에서부터 불어닥친 거센 겨울바람은 정말 제주도에 바람이 많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세차게 몰아쳤다.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보는 풍경 속에는 제주도산 돌들이 빼곡히 쌓여 경계를 긋고 있었다. 낮은 돌담이지만 웬지 타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듯했다.

드디어 목적지인 제성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여자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반갑게 반긴다. 이 교회 핵심 6인방의 활기찬 모습이다. 이 세 가지, 바람과 돌, 여자는 제주도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닷바람은 우상숭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돌담들은 험사리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제주도 사람들의 민심을 뜻하며,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남자가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

관광자원이 주 수입원이다 보니 택시 운전 외에는 남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고, 실업률은 높은 편이다. 반면 여자들은 관광가이드부터 직장 여성들이 많아 경제력이 높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국 이혼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결손가정이 많다. 한마디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자훈련의 불모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서서히 남도 끝 제주도에서도 제자훈련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제자훈련의 흙씨들이 바람에 날려 제주도 곳곳에 작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 희망의 현장인 제주 제성교회로 달려가 보자. 도심의 대형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건강함을 오히려 남도의 작은 교회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패배주의가 짙은 생면부지의 제주도로 오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중철 목사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자연스러웠다고 말한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목회자의 길이 소명이라고 확신한 그는 충신대 신대원 졸업 후, 예장 합동 교단에서 총회장을 배출한 동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그러다가 2년간 다음 목회 후보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전혀 연고가 없었던 제주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마침 교단내 목사장로기도회가 열렸던 충현교회를 방문했던 김 목사는 마침 그 교회 마당에서 제성교회 원로목사를 우연히 만나고, 후임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이다. 제주도라면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딱 한 번 외박을 뿐 인연이 없었던 곳인데, 하나님은 2년간의 기도 응답으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마흔을 앞둔 그는 생면부지의 특수한 환경에서 제2의 목회 사역을 맞게 된 것이다.

대학생 때부터 네비게이트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배웠던 그는 2003년 제성교회에 부임하자 첫 설교를 할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첫 담임목사로서 설교한 그날 성도 3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웃긴 에피소드를 놓고 설교를 했지만 아무도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당시 제성교회는 30년 된 전통 교회였다가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 전임목사도 떠나고,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상태라 후임자로 누가 오든 관심도 없었고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 2년간의 기도응답으로 알고 부임한 교회 상황은 한마디로 암담했다. 비단길처럼 환경도 좋고, 대우도 좋은 담임목회의 길이 아니었다. 혼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주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통합 교단 소속 교회가 많은 편이다. 그중에서 제성교회는 작기는 하지만 합동교단 총회에 서 제주도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때는 150명 넘게 모이던 교회로, 김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는 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떠나고 30여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나마 그 30여 명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에게는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김종철 목사는 경희대학교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3년 제주제성교회에 부임해 담임목사로 사역 중이며, 제주 CAL-NET 총무로 섬기고 있다.

제성교회는 작지만 합동교단 총회에서 제주도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때는 150명 넘게 모이던 교회로, 김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는 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떠나고 30여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에게는 실망하고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추스르게 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나 4기까지 제자훈련을 인도하며, 평신도 동역자가 세워지면서 제성교회는 점점 건강하고 밝은 교회로 변화하고 있다.

당시 주변의 조언이라도 경청하려고 지역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문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니 그저 버티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는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 역시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목회 자료나 정보, 사역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제주도 출신이 아니었던 그는 그저 막막했다. 교회의 모습은 패배주의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서서히 시작했다.

다른 길은 모른다, 오직 제자훈련뿐!

이미 대학 시절 네비게이트 출신의 선배 목회자로부터 제자훈련에 대해 배우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친 그는 동현교회 부목사 시절 47기로 CAL세미나를 수료한 바 있다. 그러나 동현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 그 교회의 목회본질이라기보다는 교회 성장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경희대를 다닐 때 네비게이트선교회 출신 선배 목회자로부터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그는 제자훈련이야말로 본질적 교회 사역이라는 도전을 이미 받았고, 신대원에 가서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해야겠다는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상처 받은 제성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한 그는 1년 후부터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가 목회자로서 받은 달란트는 오직 제자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목회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목회 방법에는 달란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으며,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2004년부터 1기 제자훈련을 시작한 그는 주일설교를 통해 도전을 주고, 제자훈련 지원생을 모집했다. 총 8명이 지원한 1기 제자훈련은 6명이 수료했다. 그리고 이 5명은 제성교회에서 김종철 목사가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전통 목회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교인들은 자신을 오픈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생소해했다. 교회만 왔다갔다하며 예배만 드리면,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제자반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이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서서히 들어가니 매주 제자반 모임은 감격의 도가니였고,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한사람으로서 부름 받은 감격에 기뻐했고, 고된 훈련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라는 의식이 서로 공유됐다.

훈련받지 않은 자들의 시샘과 자기 오픈의 어려움

김 목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유난히 조심한 부분이 있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과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목회자로서 차별을 두지 않고, 별다른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새 훈련을 받지 않은 교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시샘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때 김 목사가 취한 방법은 견디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일부러 더 표현하고, 심방도 한 번 더 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제자훈련은 주님 닮은 제자를 세워 건강한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계속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목회자가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만 사랑한다는 교인들의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온몸으로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진심을 알아주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하는 훈련사역도 지지하게 된다고 조언한다.

또 하나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훈련에 자원하기보다는 담임목사에 의해 훈련에 들어오고,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학력의 한계에 의해 훈련생들이 자기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했다는 점이었다.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자기 개방의 이름과 상처가 있었던 교인들은 제자반에서는 은혜로운 나눔이 있어도 소문날 것을 우려해 고백의 한계를 지니게 됐다.

특히 제성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구 제주지역으로 제주도의 중심기반이 모두 이전하고, 외곽에 속해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결혼가정도 많았다. 도시의 대기업 등 이마트가 들어와 지역의 상권이 무너졌으며, 제주도 사람들은 대놓고 ‘육지 것들’이라며 육지에 대한 열등감과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직업도 남녀가 모두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제자훈련 1기에 이어 2기만 정상적으로 수료했을 뿐, 3, 4기는 비정상적으로 오랜 기간 제자훈련을 해야만 했다. 이유는 훈련생 개인의 직장이나 가정환경의 변화 때문이었다. 3년 반 동안 2명을 데리고 저녁 9시부터 훈련을 인도해야 했고, 중간에 다시 훈련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김종철 목사는 “제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육지에서 온 저로서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도 쉽지 않았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성도 각 개인의 패배감은 제자훈련을 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기 오픈의 한계성조차 말씀의 적용이라는 제자훈련이 갖는 귀납적 나눔의 특성을 통해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은혜가 쏟아졌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로서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힘들 법하다. 부임 당시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전통 교회였지만, 교인 대부분이 모두 떠나 소수가 남은 상황에서 주일예배, 새벽예배, 심방과 행정, 거기에 소수가 남은 제자훈련에 시간과 목회 에너지를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2명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해도 그 시간이 아깝다거나 저 자신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3년을 집중하셨고, 그 열매는 전 세계의 복음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서도 그런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라며 웃음 짓는다.



행복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훈련받은 재미 공간

그는 남은 목회기간 동안 제자훈련에 더욱더 올인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제성교회 내 소그룹 리더인 구역장이 드디어 지난해 10년 만에 모두 제자훈련 받은 리더들로 교체된 것은 그의 앞으로 10년 사역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예수님의 군사 같은 제자들이 한 사람씩 세워졌기에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종철 목사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들이 동역자로 세워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이 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제성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관계인지를 제자훈련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목사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하며 묻던 교회 청년들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 목사에게 달려와 속내를 털어놓고는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한다.

또 한번은 제자훈련 받은 훈련생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에 취해 교회로 찾아와 “종철이 목사”하고 부르기도 했던 에피소드도 털어놓는다.

실제로 주변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지역에서 제성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밝다”고 칭찬한다. 목회자 한 명에 의해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의 의해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수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작은 자, 미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김 목사에게 의해 제자훈련 받은 평신도들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종철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의

수는 다른 제자훈련 하는 교회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 군단처럼 작지만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백배 이상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작은 교회는 훈련 지속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성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1기와 2기에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기수가 올라가면서 훈련생 개인의 어려움으로 훈련이 장기화되기도 하자, 2013년도에는 제자훈련을 아예 1년간 쉬었다. 훈련생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

실제로 주변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지역에서 제성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밝다”고 칭찬한다. 목회자 한 명에 의해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의 의해 교회가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제성교회처럼 교인 100명 미만인 교회는 매년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해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한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양육 훈련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요즘 제주도에 암에 걸려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한 남자 성도가 스스로 제성교회에 찾아와 작년에 김 목사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고 한다. 암 발병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는 평평 울다가 나중에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3~4시간씩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고민과 의문들을 쏟아냈다. 그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면서 한 영혼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한다.

그의 이런 신념은 대량으로 찍어내듯 새신자 교육을 마치



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온 심혈을 기울여 양육하고 훈련하며, 비록 소한 사람의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제성교회에는 타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초신자나 잠시 교회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오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목회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아깝다거나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목회자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며,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는 일은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못합니다.”

이어 김종철 목사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며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나 성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신은 길으로 나타나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한 영혼 속에서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한다.

제자훈련을 성공이나 실패, 교회 부흥차원으로 접근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패배한 것 같은 모습만 보일지라도, 끝까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제자훈련 한 번으로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자가 사람도 없는데, 매년 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한 영혼을 제대로 섬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매가 많지는 않아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목회자 스스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제자훈련 3대 주제어, 훈련 · 공동체 · 하나님 나라

제성교회에서 4기까지 제자훈련을 마친 김 목사는 훈련의 결과물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 인식 전환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손꼽는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교인들의 생각과 한계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제자훈련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목표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하고 있다.

김종철 목사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즉, 훈련,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제자훈련의 3대 주제어라는 것이다.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온전한 제자훈련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공동체를 함께 지키고 그 속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회복에서 개인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없고, 공동체에서 지도를 받고 위로받으며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을 위해 다른 사역들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가대나 다른 사역을 희생하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교인들을 다른 교회 행사나 이벤트에 동원하지 않는다. 철저히 제자훈련과 설교, 구역모임에 성도들이 집중할 것을 권할 뿐이다.



이제 더 나아가 방
치된 아이들을 위한 지
역 아동센터와 도서관을
짓는 등 꿈의 성전을 만들
고 싶은 희망에 김 목사는 부풀
어 있다. 제성교회 자체도 오래돼서 건
물이 많이 낙후됐지만, 예배드리고 교제하기에는 아직도 충
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방치된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아동센터를 지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이런
꿈을 그는 제자훈련의 테이블 위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으로 평신도 동역자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

또한 김종철 목사는 동료 목회자들을 제자훈련 모임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품고, 기도 중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노
회 동료 목회자 10여 명과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 교제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에게는 모두 좋은 동역자들이다.

그는 지난해 CAL-NET 모임에 참여하면서 춘천의 하늘
평안교회 오생락 목사가 강원 지역 목회자들을 코칭 네트워
크로 섬기며, 그들이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지도록 돕는 모
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역시 매주 만나는 제주 목
회자 모임에서라도 제자훈련 노하우를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됐다. 실제로 제주 CAL-NET 모임 총무이기도
한 김종철 목사는 받은 은혜를 제주지역 목회자들과 나누고
자, 제주 CAL-NET 대표인 강기욱 목사(제주서문교회)와 함께
2014년 열심히 펼 계획이다.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쏟아 부는 김종철 목사가 섬기는 제성교회의 10년 후 모습도
기대되지만, 제주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헌신
을 통해 제주지역에 제자훈련의 바람이 한차례 불 것 같은 기
분 좋은 예감이 든다.  〈우은진 기자〉



소외된 결손아동과 제자훈련 목회자들을 섬기겠다

지난 10년간 제성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밝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퍼지자, 다시 100명의 성도가 모이고 교회는 되살
아났다. 김종철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붙들고, 목회의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
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교회 안으로는 교회 성장이나 건축보다 한
사람을 붙드는 본질 사역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또 넉넉
하지는 않지만, 교회 밖으로도 나눔을 많이 하려고 한다. 어
려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
움에 처한 교인들에게 작은 물질적 섬김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제성교회에는 잘사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
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
회다. 특히 김 목사 자신이 목회자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기에
더욱더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있다. 교인 10여 명이 매달 얼
마씩 내서 심방 때 어려운 사람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묻지
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 물질적으로 섬기는 '묻지마 구
제'를 한다. 받은 분은 누가 줬는지 잘 모를 정도다. 이 모두
가 훈련받고 공동체를 세운 평신도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쏟아 부는
김종철 목사가 섬기는 제성교회의 10년 후 모습도 기대되지만,
제주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헌신을 통해 제주지역에
제자훈련의 바람이 한차례 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훈련받은 소수의 힘, 교회를 활기치게 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얼마나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제성교회 제자훈련은 잘 보여준다.
자칭 제성교회의 활력소 6인방을 초대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점과 제성교회 자랑을 들어봤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게 됐다” 백해리 권사

2004년 1기로 제자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내가 다 한다는 생각에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점이다. 훈련받기 전에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교회 자랑을 하자면 교인들의 성품이 너무 좋고, 담임목사님의 성품은 더 좋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을 통해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됐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려 가실 제성교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힘껏 섬기도록 하겠다.

“삶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유민자 집사

2007년 3기로 제자훈련 받았다. 제자훈련을 통해 삶과 신앙생활의 균형, 가정이 회복된게 큰 변화였다. 기도를 많이 해도 실제 삶이 변화되지 못해 갈등했는데, 훈련을 받고 과제물을 하면서 부족한 삶을 많이 나누게 됐다. 내 놓고 싶지 않은 속 이야기도 내놓으면서 많이 변화됐다. 목사님께서 권위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 내게 제자훈련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운 맞춤형 훈련이었다.

“나는 제자반의 울보였다” 윤정남 권사

2006년 2기로 제자훈련 받았다. 나는 제자반의 울보였다. 늘 후지를 들고 제자반에 들어갔던 기억이 새롭다.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제자훈련 받고 시작됐다. 기도와 큐티를 잘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이 느껴지면서 은혜를 받았다. 말씀 적용을 잘한다는 목사님의 칭찬에 신이 나서 돌아가곤 했다. 제자훈련과 동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가족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김영선 권사

2003년 1기로 제자훈련 받았다. 제성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갈한 상태에서 김종철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한다가에 신청했다. 훈련받으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간절히 기도하니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구나”를 느꼈다. 어린 믿음의 남편 때문에 울면서 제자반에 나올 때가 많았다. 그러나 수료할 때는 남편도 많이 변화됐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엄마가 됐다. 제성교회 자랑을 하면, 성도들이 무척 밝고 행복해한다.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 많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몰래몰래 십시일반 잘 섬긴다.

“교회 굿은일은 6인방이 모두 해결한다” 한미숙 사모

17기는 인원이 많아서 못 받았고, 2004년 성도들이 이사를 가면서 훈련받을 것을 남편으로부터 제안받았다. 11시 예배 때 자모실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영상도 없었던 시절이라 말씀을 못들으니 영적으로 갈해졌다. 그때 2기 제자반에 편입해 훈련을 받았는데, 사모이기에 100%를 오픈하지 못했지만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가까워지게 됐다. 교회의 굿은일은 제자훈련 받은 여기 6인방이 모두 해주신다. 훈련받은 소수지만 손발이 잘 맞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되어 서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 부임 후 첫 예배 때의 경직됐던 교회 분위기는 사라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 중심에는 여기 6인방이 있었다.

“나는 자칭 목사님 관리자다” 강내인 권사

2003년 1기로 제자훈련 받았다. 내겐 이 교회가 첫 교회였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잘 몰랐다.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내적 성장을 경험했다. 훈련의 열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 점이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말씀을 훈련생들과 나누면서 위로받았고, 미움이 사라져갔다. 나는 자칭 목사님 관리자다. 목사님 자랑을 하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목사님도 설교와 훈련을 할 때면 코끝이 빨개지도록 웃는다. 거리감이 없어서 좋다. 다른 교회 연합회 강사로 가시면 마당발이고 인기도 많으시다. 그래서 농담 삼아 내가 가끔씩 관리해드린다.